



오늘의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_ 마태복음 13:31~32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겨자씨인도자수련회 | 6 | 남선교회여전도회 | 9 | 영화로 성경 읽기 |
| 3 | 유아유소년숲 공과 | 7 | (사)섬김과나눔 | 10 | 십자말씀이 / 기독교부모 |
| 4-5 | 양육클래스 | 8 | 겨자씨이야기/교사일기 | 11 | 교회사용설명서(성찬) |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의 의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교리편에 성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은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하며 유익을 받을 뿐 아니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하며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성찬에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2022년도 하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각기 다른 색깔의 돌이 모자이크를 이루듯

지난 9월 2일(금) 오후 7시, 본교회 대예배실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겨자씨인도자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신약학자로 한일장신대에서 후진을 양성하시다 교회로 자리를 옮겨 성경적 삶을 현장에 접목하고 계신 박영호 목사님(포항 제일교회 담임목사)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주제로 하여 선교적 교회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역시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어 인도자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현장에서 또 각자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선교적 삶을 품고 꿈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를 넘어선 온 피조세계입니다.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우리가 동참하여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이 선교이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아담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노아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 창 12: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through)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세상을 복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복은 내세에 약속된 복인 것과 동시에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회복과 구원입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평화와 질서, 진정한 살림이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기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자문하게 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창조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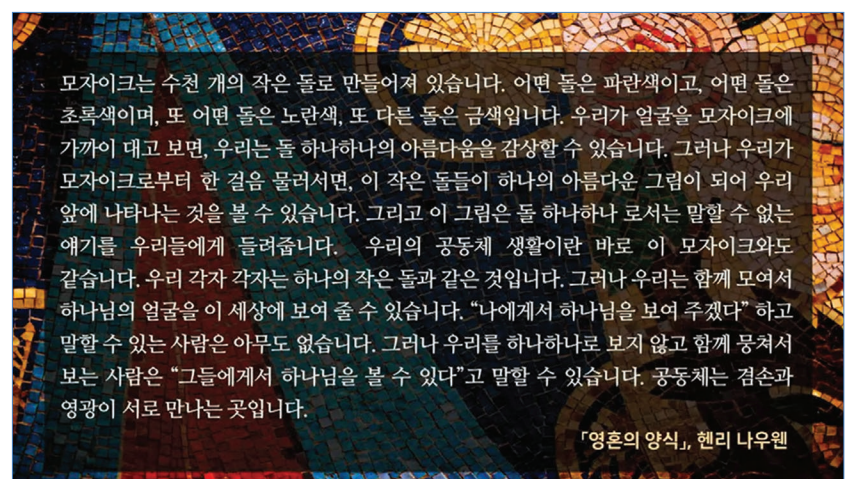
올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며 교회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기독교가 문화적 소수파가 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특수한 진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사회 문제에 해답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겨자씨인도자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설교와 성경공부는 세상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레시피이기에, 이를 읽을 줄 아는 우리가 이를 이용해 요리를 만들고 빵을 구워 세상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히브리서 10:24), 세상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세상과 함께 ‘함글함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표방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삶의 회복을 꿈꾸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려 모인 사람들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각기 색깔이 다른 하나의 작은 돌과 같지만, 공동체로 겸손하게 모이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모자이크를 이루듯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 주어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머금은 겨자씨로 이뤄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레시피를 활용하여 사랑의 빵을 구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우리 주님의교회 모든 겨자씨가되길 소원합니다.

박주영 목사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전해요

주님의교회 유아숲과 유소년숲은 총회교육자원부에서 펴낸 ‘말씀으로 쑥쑥’과 ‘제자 플랫폼’교재를 사용합니다. 2022년 교재는 ‘말씀 편 : 성경이 이야기’가 주제이며 유아숲과 유소년숲은 같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신앙교육 위해 유아유소년숲 3주간의 공과내용을 연재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공과로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줄함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9월 25일 공과는 39과로 에스겔 47장 1~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때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47장 말씀을 통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동쪽으로 향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동쪽으로 흘러갈수록 점점 깊어진 이 물은 아라바에 이르러 바다를 되살립니다. 아라바 바다는 염해 즉 사해를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강 좌우에는 과실 나무가 자라서 먹을만한 열매와 약 재료가 되는 잎사귀를 맺습니다. 또한,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이 바다가 되살아나 물고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성전의 물은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본 생명의 강물을 요한도 보았습니다(계 22:1~2) 이 생명의 강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희망을 전해줍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10월 첫 주는 40과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무교절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요3:5~6),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고

후3:17)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엡4:3)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게 하시고 기대를 불러일으키십니다(고후5:5)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갈5:22)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요14:26)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다짐해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10월 둘째주는 41과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교인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사도들만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총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어 주는 구체 사역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가 뽑혔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여러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 나갔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중 스테반 집사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스테반 집사는 초대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회당에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로 마음이 찢린 회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난 얼굴로 순교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이자 전도자입니다. 스테반 순교 이후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함줄함울

주님의교회 가을학기 양육클래스



구약특강 - 모세오경

이번 학기에는 <구약 - 모세오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독서’로 구약성경<모세오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의 본뜻과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현실속에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시간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이야기(경상, 충청편)

지난 시간 경기.서울편과 호남편에 이어 이번 학기에는 경상과 충청지역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경상지역은 선교분할정책으로 호주장로교와 미국북장로교에서 경남북지방을 나누어 담당하고 선교하였던 곳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도 흔들림 없이 굳은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북감리교와 북장로교, 미남장로교 등 여러 선교부가 활동했던 충청지역은 동서로 분열된 한 가운데에서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조화의 미덕을 실천하는 선비 같은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소중한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고 접하며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되 올바르게 굳세게 살아오신 선조들의 균형감 있는 삶을 소망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신학입문 2 - 예배학개론

“신학의 영광은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서 왕위에 높이 앉아 최고의 권력으로 휘두르는데 있지 않고, 그것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데 있다. 이와 같이 신학은 오직 섬김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은 약할 때 강하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가 되고자 할 때 가장 큰 자가 된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고자 할 때 영광을 얻는다.”- 헤르만 바빙크 - 신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수업이며, 특별히 이번 학기는 예배학을 다룹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1. 중보기도부에서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 중보기도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2. 성경을 통한 중보기도의 이해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기도를 통한 영적 기준과 가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으로 떠나는 미술순례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는 램브란트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기독교문화학의 관점에서 조명해본다. 아울러 램브란트를 존경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도 함께 살피면서 일상성과 영성의 합일을 발견하고자 한다.(2021년도 양육클래스 재강의)



10개 도시로 읽는 구약

「10개 도시로 읽는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주요 도시의 역사와 사건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각 도시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클래스



성경 속 예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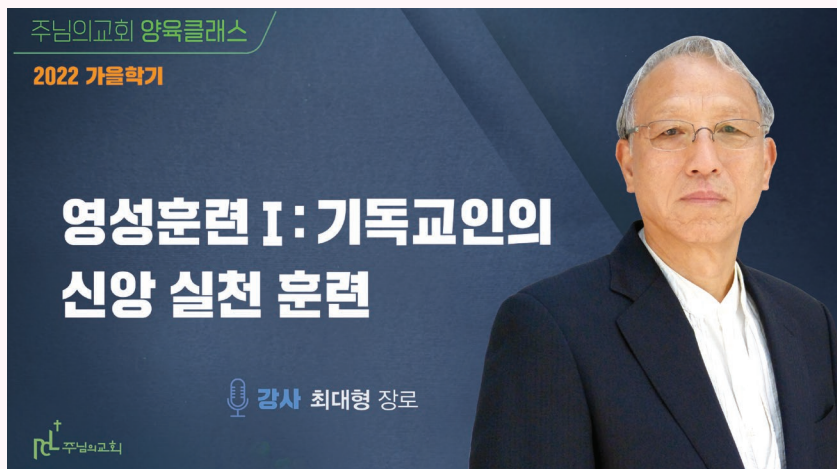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올바른 예배에 대한 배움이 없을 때 본질이 아닌 형식에 얽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대면강의로 진행될 성경 속 예배이야기 양육클래스를 통해서 신앙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애(愛) 2

문명의 발달을 자랑하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삶의 전반이 바뀌었습니다. 또, 기후의 변화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 없이 생존에만 몰두하던 자세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전반부에 이어 창세기 후반부 연구를 통해, 사람 및 피조세계의 창조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성훈련 1: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 훈련

1. 벵후 1:3-11절을 중심으로 신앙 실천 훈련
2. 기독교 영성사 및 수덕 관련 다양한 전통 탐구
3. 성경 원문 및 영성 관련 용어 이해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 2 (변화하는 선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시대에 따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제자들,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 정리와 마태, 누가, 바울, 동방교회, 중세로마가톨릭, 개신교종교개혁, 계몽주의 이후의 선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교는 상황에 따라 변화했고, 각 시대 나름의 방향과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수업은 이러한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상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배워보며, 주님의교회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통독(구약 역사서 정독)

구약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구절은 간단한 강의와 함께 “간독”이 아닌 “정독”을 하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6



여전도회
연합월례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9월 14일(수)에 6개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 7, 8월의 폭염과 9월초의 태풍을 잘 이겨내신 80여분의 회원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하였다. 파주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님은 빌립보서 2장 12~16절에 기초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만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특순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암송이 있었는데, 여전도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짧은 사랑장썸은 모두 암송하기를 바라면서 11월 총회 때 암송대회를 열고 상품도 주기로 했다.

앞으로의 여전도회 일정을 보면, 9월21(수)에 3여전도회 주관으로 이창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포천 송우제일교회 방문예배가 있고, 10월에는 각 여전도회별 월례회가 진행되며, 10월27(목)에는 4여전도회 주관으로 홍성욱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영주 평강교회 방문예배가 계획되어 있다. 이로써 6개 형제교회 방문예배는 모두 마무리된다. 그리고 11월 16일에 여전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신규 회장단 인계인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년 초에 불확실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시작했던 여전도회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겠다.

최정숙 권사 / 여전도회 연합회장

남선교회
연합영성수련회

맑은 하늘 아래에서 친목을 다진 남선교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그동안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하여 단체활동을 미루어 오다가 초가을을 맞아 9월 17일(토)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영성수련원인 "양평 스케테"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산상수훈 산행(주변산책)을 하였습니다.

40여명 회원들이 참석한 영성 세미나에서 남선교회 담당 이대혁 목사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으며, 수련원 원장인 최대형 장로는 '기독교인의 수덕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점검하는 귀하고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준비해 간 음식을 나누고 태풍이 지나간 맑은 하늘 아래에서 산상수훈 산행을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남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합심하여 동역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함글함글



(사)섬김과나눔
무의탁어르신 생활지원

지역사회의 번영과 행복증진을 위해

9월 5일(월)에 (사)섬김과나눔 기본사업으로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추석 명절에 드실 양지 사골국, 만두, 전복죽, 송편, 모듬전과 수해를 당하신 분들 입을 옷가지 등등 135개 선물을 4개팀으로 나눠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음식을 맞춰 놓고 나누어 드린 날에는 강력한 태풍으로 하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봉사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좁은 골목에서 비를 맞아가며 한집 한집 추석 선물을 나누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11분의 (사)섬김과나눔 사역자가 중증 질병, 장애 등으로 위기환경에 놓인 무의탁(독거, 무연고) 어르신 가정에 매주 1회 오전 11~12시에 죽과 반찬 및 생필품을 제공해 드리고,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에 거주하는 생활 지원 대상자 가정에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생활 실태를 확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은 '지역사회의 번영과 행복증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사랑 이웃사랑의 사명을 전파하고 실천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미션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글함글



(사)섬김과나눔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취약계층 명절음식 나눔행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이 위탁운영하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취약가구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간 (사)섬김과나눔은 복지관 위탁 전부터 이 지역의 어르신 및 취약가정들을 위한 식생활지원, 생활지원, 긴급 위기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2022년 추석 명절에는 주님의교회 여전도회와 연합으로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서 더욱 힘들게 생활하는 마천위례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절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한부모 가구, 결식 어르신 및 노인취약가구, 독거 중장년 세대, 탈북민 등 360세대를 대상으로 전도시락 한 팩과 유과와 송편 한 팩을 전해 드렸습니다. 전도시락에는 9월 1일(목) 새벽예배를 끝내고 참석한 여전도회 회원 50여명이 준비한 오징어떡 완자전, 새우동그랑땡, 떡갈비, 버섯부추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섬김과나눔은 명절음식 나눔 이외에도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집수리 및 생활필수품이 필요한 마천동 주민들에게 도배장판 교체와 생필품 및 이불을 지원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함글함글



겨자씨이야기
1-33 예답이겨자씨

예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주 오래 전 국민일보에서 인상에 남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시는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고 기존 교회의 틀에 익숙한 한 사람으로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음이 속으로 참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 열심을 다해 섬기며 그 기사 내용은 잊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생각지 못한 일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막내 딸아이의 친구로부터 정신여고 안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소개를 받아 2018년 3월 첫 주 주님의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김화수 목사님을 처음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말씀과 찬양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바로 등록하였습니다. 등록하고 난 후 오래전 국민일보 기사에서 봤던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등록한 주님의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닌데 그 건강한 교회에 등록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담임목사님 옆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시던 한 분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또한, 새가족 면담 시간에 바라만 봐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을 것 같은 모습으로 박주영 목사님께서 맞이해주셔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선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천천히 교회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선뜻 들어가기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초에 교회에 겨자씨 안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얼마 후 겨자씨 가족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지요. 목사님 옆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던 인상 깊었던 바로 그분이 예답이 겨자씨 인도자 심동욱 장로님이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라는 의미의 예답이. 꽤 긴 세월을 함께 하신 끈끈한 가족들이 저희 부부를 새내기 가족으로 친절하게 반겨주고 맞이해주셨습니다. 예답이는 모두 다섯 가족이 모입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고 재능도 모두 다재다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곳도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시 강동구까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멈춰 있을 때, IT에 하신 집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글 미트(Google Meet)를 개설해주셨습니다. 그 후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한주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범적인 겨자씨랍니다. 재미있고 쉽게 성경을 풀어주시기 위해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예답이 가족들은 주일학교 학생이 된 것처럼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매주 성경 본문에 관련된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도 꼬박꼬박 하신답니다. 혹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즐겁고 은혜롭고 감동입니다. 성경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에피소드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그래서 저희 부부는 김장하러 시골에 내려가서도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석한 적도 있었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면 또 한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답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광고호수 같은 경치 좋은 곳 산책도 하면서 삶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입니다. 산책할 때는 사진 잘 찍으시는 집사님께서 멋진 사진도 선물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와 예답이 가족을 만나게 하심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현숙** 권사 / 1교구

교사일기
어와나 스팅스, 유년2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안녕하세요, 어와나 스팅스와 유년2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윤정 성도입니다. 어와나 스팅스 교사는 2019년부터, 유년2부는 지난달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 직장생활과 육아를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상황이 폭풍처럼 덮쳐왔을 때, 8교구 은혜 겨자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모임 나눔을 통해서 <큐티인> 책을 선물로 받아,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유튜브로 설교 말씀들을 틈만 나면 찾아서 듣고 카톡방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저는 기도도 그저 엎드려서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들어주실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몰라 헤매었습니다.

또 직장생활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고민 등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현실 문제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매주 겨자씨 모임의 문을 두드렸고, 저의 나눔에 함께 울고 웃어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에 대해 얕은 개념만 가지고 있던 제가, 삶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선배 육아맘이신 집사님을 통해서 어와나를 알게 되었고, 아이의 입단을 위해 교사로 섬길 수 밖에 없었지만, 교사로 섬김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이, 집안일이, 육아가, 가족관계가 전쟁터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근력, 생활력이 있는 어른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아이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감정과 상황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가정이 아닌 학교와 학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긴장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아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부모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자신들의 보호자가 부모임을 인식하며 성장하는 동안,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알아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를 닦아줘야 하는데, 그 현장이 교회학교이고, 어와나 클럽 활동이며,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의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삶에서 보고 있어, 스팅스 교사로, 유년부 교사로 섬기는 제 모습이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계획 아래 있음을 믿기에, 한걸음 도전하며, 교회학교를 세우고 섬기며,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함께 더욱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김윤정 성도 / 어와나 스팅스, 유년2부

영화로 성경 읽기
〈죽여주는 여자〉 편

우리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죽여주는 여자>(2016)는 죽여주게 민망한 영화였다. 이제는 세계적인 배우가 된 윤여정이 연기한 박카스 할머니, 소영 할머니가 생계를 해결하는 노골적인 장면들이 한몫했다. 이 영화가 아직까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소영 할머니가 나에게 “너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묻는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소영 할머니의 이웃들(트랜스젠더, 장애인 청년, 코피노 소년)이 주고받는 정겨운 동병상련은 전쟁터의 민들레 꽃밭 풍경처럼 애뜻하다.



노인의 성매매는 결(結), 우리의 현 위치는 기승전(起承轉)

젊은 층 또는 중장년층에 소속된 우리들은 존재감을 정당히 인정받기 위하여, 24시간을 성실히 살아간다. 그렇다면, 보통의 노인들은 언제 존재감을 느낄까? 생신, 명절뿐일 것 같다. 그러나 소영 할머니에게 성을 구매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독거 중이다. 목적지가 죽음인 완행 버스에 탑승 중인 이들은 생신날, 명절의 평범한 희노애락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들은 소영 할머니를 만날 때의 짧은 성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활동력 있는 생명체로 느낀다. 그러나 이 불량 식품에는 수치심이 함유되어 있다. “증기 배출 시작 직전의”전기 밥솥처럼 분출 직전의 욕망을 소영 할머니가 죽여주지만, 이 불량 식품이 삶을 헤쳐나갈 힘을 주지는 못한다.

성적인 에너지를 양으로 측정한다면, 노인이 아닌 세대에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대가 삶을 영위하는 즐거움은 결코 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영 할머니를 통해 욕망을 해결해야만 하는 정력 넘치는 노인들의 성행위에도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나날이 퇴화되는 신체를 바라보며 신체적·정서적으로 삶의 상실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상대의 체온을 직접 느끼는 신체적인 접촉은 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일상적 안정감은 소소한 즐거움에 기반을 두고 유지됨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영화 속의 등장 인물들이 나누는 행복 역시 현실적이다. 일상의 대화를 농담처럼 나누며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조출하지만 다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퇴폐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 영화의 분위기에 온정을 불어넣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소박한 행복에조차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이 결국은 소영 할머니에게

죽여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을 헤쳐나가는 희망의 낯설은 모습이 소영 할머니와 노인들의 만남일 수 있다. 노인의 성(性) 문제를 도외시 한다면, 곧 다가올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관심이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러한 기승전결이 영화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 역시 예비 노인이다. 우리 세대 역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활발히 일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신속히 망가지게 되어있다. 나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나와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내 옆의 사람인 것이다. 이 영화에서는 몇 해 더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한 인간이 얼마나 주변과 교류하며 가치 있게 사는가를 비중있게 다룬다.

노화와 노인의 죽음 : 이 싸늘한 사연이 당신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

세 가지 유형의 노인이 소영 할머니에게 죽음을 부탁한다. 신체적인 자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감을 잃어가는 중풍 환자, 인지 능력이 상실되어 자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치매 환자, 익숙한 처자식과 이별한 후 고독감에 시달리는 우울증의 가장이 있다. 이 노인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미 진행 중이며, 한참 진행된 노화에 대하여 개인과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소영 할머니가 영화 속 다른 노인들과 다른 점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자립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작가를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항변하였으며, 박카스병을 들고 다녀도 청바지를 예쁘게 수선하여 입었고, 꽃배달 할아버지와 비극적인 만찬에서도 블라우스를 차려입는 여성스러운 면모를 잃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웃에게 베푸는 소영 할머니 특유의 연민, 살면 살아진다는 식의 인생관은 사회적 자립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었을 것 같다.

소영 할머니의 생업을 사회 부조리의 결과로만 결론짓지 말자. 나 역시 완전한 노인이 된 후, 이렇다 할 능력도 없이, 확실한 연고도 없다면, 호구지책을 위하여 매춘과 자살 방조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박카스 할머니를 죽였다.

사회와 가족들이 살피주지 못한 ‘좋은 죽음(well-dying)’서비스까지 소영 할머니가 몰래 챙겨주는 장면은 최고로 알맞게 느껴졌다. 박카스를 들고 다니던 소영 할머니는 여러 유형들의 노인들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희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함께 했다. 성직자나 전문 상담가보다도 인간을 수평적으로 대했다는 곱지 않은 평가까지 받을 정도이다. 그러나 소영 할머니의 사각 유골함에 적힌 ‘무연고’라는 단어, 본명 ‘양미숙’을 보았는가. 그 장면은 아직도 나를 짓누른다. 누구보다도 당당해 보였고, 인간적이었던 소영 할머니가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과 달리 소영 할머니가 ‘자살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도 아직까지 나를 괴롭힌다.

사족 하나,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박카스 할머니 소영 역을 맡은 배우 윤여정은 제20회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최혜선 성도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레위기편

이번 호에는 레위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56호 출애굽기편 정답



가로 힌트

1.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하나인 번제에 드리는 제물. 번제는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제물 전체를 태워서 올리며 '완전함, 온전함'을 뜻한다. (레위기 7:2)
3. 수리목에 속하는 맹금류. 성경에서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함께 가증하여 먹지 말라고 했다.(레위기 11:14)
6. 비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쇠무릎'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레위기 14:49)
8. 법계를 덮고 있는 법계의 뚜껑. 인간의 죄를 덮어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레위기 16:15)
11.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하게 쓰인 의사 결정 수단. 땅을 정할 때, 범죄 사실을 밝힐 때 등에도 쓰였다.(레위기 16:9)
12.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로운 관계와 교제를 위해 바치는 제사. 불을 때는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레위기 7:13)
14.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가며, 모든 땅의 농사는 쉰다. (레위기 25:13)
15.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감람 열매(올리브)를 짓눌러 으깨어 짜내는 액체. 식품, 약품, 화장품, 성스러운 제사 등에 쓰였다.(레위기 7:12)
16. 모세의 형.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레위기 9:1)
18.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 이름은 '건너내다'라는 뜻이다. (레위기 10:20)
20. 비둘기목 비둘기과에 속한 조류. '멧비둘기'라고도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희생 제물로 두루 쓰였다. (레위기 14:22)
2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했다. (레위기 7:38)
22. 아론의 셋째 아들. 이름은 '신의 도움'이라는 뜻이다. 아론이 죽은 후 대제사장이 되었다. (레위기 10:6)

세로 힌트

2.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 맡긴 거룩한 임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들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레위기 1:7)
4. 주로 해안이나 호숫가에 서식하는 조류. 성경에서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와 함께 가증하여 먹지 말라고 했다.(레위기 11:17)
5. 하나님이 죄지은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바쳐서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었다.(레위기 16:33)
7. 단 지파 디브리의 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다가 모세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레위기 24:11)
8. 이스라엘에서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레위기 19:21)
9. 이스라엘에서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 (레위기 6:15)
10. 이스라엘에서 7년마다 갖는 휴식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포도밭도 7년마다 쉬도록 했다. (레위기 25:5)
12. 구약 시대에 불을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제사는 이 방식이었다. (레위기 1:9)
13.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등을 두루 부르는 말이다. (레위기 23:2)
16. 아론의 둘째 아들. 형 나답과 같이 불결한 불로 하나님에게 제사하여 멸망함을 받았다. (레위기 10:1)
17. 레위 지파 고향의 아들. 아론의 삼촌이며 미사엘과 엘사반의 아버지이다. (레위기 10:4)
19. 구약 시대의 무게 단위. 성전에서 세겔은 약 10g의 은화를 말하는 이름이었으나 후에 무게의 단위로 바뀌었는데 대략 11.4g을 의미했다.(레위기 5:15)

기독학부모
문고 답하다

부부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기독학부모의 고민을 듣고 해답을 찾아가는 기독학부모 함성지기(기독학부모 리더그룹) 모임에서 '교육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교, 청년인 것을 볼 때 그 나이대의 아버지들은 교육에서는 한발 물러나 어머니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우선 아이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 없이는 아버지가 아무리 주도권을 가진다고 해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많이 안타까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방법들은 다를 수 있어도 바라보는 지향점은 같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같을 수는 없습니다. 관심과 대화를 통해 맞춰가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용설명서⑤

성찬에 대해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을 포함한 성례전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그 의미와 집행의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편 교리’중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가운데 ‘제27장 성례전에 관하여’에서는 성찬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하여 직접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 치심이다. 그와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4.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의미와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회생을 언제든지 기억케 하시고, 참신자에게 모든 은사를 인 치시고, 그의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 장성케 하고, 그들이 띠고 있는 모든 의무에 관여하고 그와 더불어 가질 교제의 매는 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한 이것이 그의 신비적인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정해주시는 것이다.
3. 주 예수는 이 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목사를 택하였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이 예전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하해서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한다. 또한 떡을 떼고 잔을 들어 그들 자신이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 배찬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나 그 때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 못한다.
7. 이 예전에 있어서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값있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또한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인 뜻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예전에 있어서는 살과 피가 의미하는 그대로 신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현실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제4편 예배와 예식’제2장에서 실제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에 대하여,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정리하고, 성례전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며, 장소는 교회가 기본이지만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정에 의해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 아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1989년 3월 25일 부활절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한 후 1992년까지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1989년 첫 성찬식은 이재철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기에 임영수 목사가 집례했습니다. 1991년 11월 10일 성찬식부터는 떡과 잔을 받자마자 개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집례자가 기도를 한 뒤 함께 나누며, 잔은 예배를 마치고 거두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9월 23일부터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떡과 잔을 받고 앉아 집례자의 기도 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1993년 2월부터는 성찬식을 매월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님의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 1년에 보통 4번 정도 하는 것과 다른 점이었습니. 1999년부터는 성금요일 오후 8시에 고난기념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인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예배용 성경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바뀌었고, 매달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던 성찬식은 2002년부터 홀수달과 교회 절기마다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정기적으로는 홀수 달 마지막 주일에, 비정기적으로는 주요 절기에 가짐으로써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 1월부터는 홀수 달 첫째 주일로 변경되었는데, 홀수 달에 거행되는 성찬식이 교회의 절기나 기념 주일과 자주 겹치자, 2006년 2월부터는 짝수 달 첫째 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부터는 다시 매달 첫째 주일에 거행했으며, 2018년부터 홀수 달 첫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말 발생하여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성찬식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어 부활한 2022년 7월과 9월 성찬식은 전과 달리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일회용 성찬 키트로 드려졌습니다.

사용 방법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은 성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성찬은 떡을 떼어 나누고, 포도주를 따르고 나누어 받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성찬팀에서는 예배 전에 성찬기에 떡을 상징하는 동그란 전병을 담고, 성도 수만큼 준비한 작은 잔에 포도주나 포도즙을 따라두어 성찬식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을 위해서 전병과 포도즙이 개인별 용기에 들어 있는 일회용 성찬 키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회용 성찬 키트는 전병을 담는 공간과 포도즙 담은 잔이 밀봉된 채 붙어 있어,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가 각자 뚜껑을 열어 전병을 꺼내고 포도즙을 마시게 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성찬에 대한 오해와, 성찬에 사용되는 전병과 포도주와 관련한 미신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가운데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4. 사적인 미사나 이 예전을 신부에게나 그밖의 사람에게만 받거나, 또는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거나,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거나 높이 들어 올리거나 동경하는 마음으로 들고 다니거나 또는 무슨 정상적이 아닌 종교적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이 예전의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5. 이 예전의 외적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이 요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때로는 물질 그대로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때로는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도 부른다. 그렇게 부른다 해도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예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 그대로 남아 있다.
6. 신부가 축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또한 예전의 본질을 전도시키는 생각이며 과거나 현재나 여러 가지 미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야말로 큰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었다.

즉, 성찬은 안수를 받은 목사의 인도 아래 성례전으로 집례되는 그 순간 의미를 갖는 것이지, 전병과 포도주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소식

더위에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뭐든 새롭게 해보고 싶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도 잠시 쉬의 시간을 지나 다시 시작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여러 사역과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MOTHERWISE 마더와이즈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

기간: 9.27(토) ~ 11.22(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9주)

장소: 소년부실(3층)

대상/등록비: 주님의교회 모든 여성 성도 / 3만원(교재 및 교육자료)

신청방법: 홈페이지 부티플페어런팅센터 '2022 하반기 교육일정' 구글신청서

커리큘럼: 마더와이즈 "동행" 편

주차	날짜	교육주제
개강식	9.27	오리엔테이션, 환경과 사랑의 인사
1주	10.4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고, 그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주	10.11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3주	10.18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1)
4주	10.25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2)
5주	11.1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상속자를 준비시킬 것인가?
6주	11.8	젊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7주	11.15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수료식	11.22	천왕과 경배, 조별 간증 나눔, 수료증, 기념촬영

문의: 마더와이즈(점영 목사 010-9592-0820)

FATHERWISE 파더와이즈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성경적 원리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파더와이즈(지배로운 아버지)에 성도남들을 초대합니다!

기간: 9.27(토) ~ 11.15(토), 매주 화요일 오후 8:00(8주)

장소: 4층 (대회의실 / ※ 필요시 온라인(ZOOM) 진행)

대상 및 모집인원: 주님의교회 모든 남자 성도 30명

참가회비: 3만원(교재 및 교육자료)

신청방법: 홈페이지 부티플페어런팅센터 '2022 하반기 교육일정' '파더와이즈'에 링크된 구글신청서를 통해 신청

커리큘럼:

주차	일시	교육주제
개강식	9.27	오리엔테이션, 환경과 사랑의 인사
1주	10.4	지혜에 대한 탐구
2주	10.11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 세우기
3주	10.18	하나님과 남성의 관계 1.2 (신뢰에 순종하는 방법 배우기)
4주	10.25	남편과 아내의 관계 1.2 (남성의 머리 될, 아내 순종하기)
5주	11.1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1.2 (경건한 후손 낳기, 자녀를 위한 세 가지 선물)
6주	11.8	아버지와 세상의 관계 1.2 (일제 대한 4가지 성경적 테스트, 생기는 마음 갖기)
수료식	11.15	천왕과 경배, 조별 간증 나눔, 수료증, 기념촬영

문의: 파더와이즈(이성훈 목사 010-9808-4788)

주님의교회 양육클래스

2022 가을학기

- 수강신청: 9.11(주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또는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 신청
- 양육기간: 9.13(화) ~ 12.3(토)
- 문의: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온라인 강좌 YouTube

구약특강 (모세오경)	창바울 목사 (010-3657-0421)
한국교회 이야기(경상, 충청편)	박주영 목사 (010-3347-0390)
10개 도시로 읽는 바울 서신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신학입문 II	배윤환 목사 (010-3138-3262)
미션 퍼스펙티브스 (PSP)	미션 파트너스 이진희 목사 (010-8882-5503)

온라인 강좌 zoom

(토/오전 10시)	그림으로 따나는 미술순례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금/오전 10시) <th>종보기도</th> <th>이종성 목사 (010-3418-7386)</th>	종보기도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현장 강좌

(화/오전 10:30)	태초애(愛) II	박민규 목사 (010-8790-9690)
(금/오전 10:30) <th>성경 속 예배이야기</th> <th>한시영 목사 (010-8935-5048)</th>	성경 속 예배이야기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금/오전 10:30) <th>선교를 꿈꾸는 사람들: 변화하는 선교 II</th> <th>류경민 목사 (010-7195-4640)</th>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 변화하는 선교 II	류경민 목사 (010-7195-4640)
(금/오후 2시) <th>성경통독</th> <th>이대혁 목사 (010-9006-9129)</th>	성경통독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토/오전 10시) <th>영성훈련 I: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 훈련</th> <th>최대형 장로 (010-3814-1353)</th>	영성훈련 I: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 훈련	최대형 장로 (010-3814-1353)

부티플페어런팅센터 2022 하반기 교육일정

세움학당	9/17~11/5	(토) 오후 6:00	원장 윤관인 평행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마더와이즈	9/27~11/22	(화) 오전 10:00	원장 윤관인 관운선 목사(010-9592-0820)
파더와이즈	9/27~11/15	(화) 오후 8:00	원장 윤관인 이성훈 목사(010-9808-4788)
생성나무	9/28~11/30	(수) 오전 10:00	원장 윤관인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가정예배학교	9/29~10/27	(목) 오후 8:00	원장 윤관인 배윤환 목사(010-3138-3262)
해피팍스쿨	10/4~11/22	(화) 오후 1:00	원장 윤관인 관운선 목사(010-4773-8186)
꿈꾸는 3막	10/6~11/24	(목) 오전 10:00	원장 윤관인 한시영 목사(010-8935-5048)
결혼예배학교	11/6~11/20	(주일) 오후 3:00	원장 윤관인 이진희 목사(010-4817-0109)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10/8, 11/12, 12/10	(토) 오전 5:20	원장 윤관인 평행 관운선 전도사(010-7125-2712)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쉬었던 국립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시작일자: 10월 4일(화)
봉사시간: 월~금 중 매주 3시간
봉사장소: 국립의료원 (을지로 6가, 동대문 운동장에서 5분)

※ 주차 가능 ※ 점심제공 ※ VMS봉사시간등록

- 국립의료원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중 계속하실 수 있는 분
- 다른 병원이나 호스피스 시설에서 봉사 경험이 있으신 분
- 호스피스교육을 수료하고 처음 봉사하실 분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 및 문의: 김희수 집사(010.5302.3175)

주님과함께 QT 간증수기 공모전

주님과함께로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큐티를 통해 나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회개와 소망의 이야기, 그 외 큐티를 통해 얻어낸 여러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주님과함께 큐티책에 실어서 그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참모 대상: 주님과함께로 큐티하는 모든 주님의교회 성도님
- 참모 마감: 2022.9.30(금)
- 참고 사항: A4 반 장 (글자 크기 10포인트, 행간 160% 기준)
- 접수 방법: 직접 원고를 출력 후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중 택 1
원고 제목: 4층 교역자실
이메일: pcl198006261@gmail.com
- 시상: 원음상 (50만원 상당권)
소망상 (30만원 상당권)
사랑상 (10만원 상당권)
- 문의: 한시영 목사(010-8935-5048)

※ 청원재미 캘리그래피 발송나눔
※ 주님과함께 추천도서 판매
※ 정기 정기구독자, 큐티책 선교사역 특별사임, 큐티책 개인전서전

교회일정

10/9(주일) 정기당회
10/16(주일) 추수감사주일 세례입교예식
10/21(금) 정책당회

알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VOL.6

본문: 역대상, 역대하
기간: 10/1(토)~12/31(토)
수령: 무인판매대(1층)

2.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전시

주제: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기간: 10/14(금)까지
장소: 1층 로비 및 푸른초장(지하)

3. 주님과함께 QT 간증수기 공모전

'주님과함께'로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공모합니다.
기간: 9/30(금)까지
문의: 한시영 목사(010.8935.5048)

4. 함줄함울의 메일주소가

pclhamletter@naver.co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김화수

편집인: 유정식

발행처: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